

이재명 '방역 차별화'... '코로나 민생' 챙기기 총력

확진자 폭증 대선 약재 위기감
휴식후 첫 일정 보라매병원 찾아
"방역 강화 억울한 국민 없어야"
당정, 선지원 논의 등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점심 시각에 서울 동대문구 보라매병원에서 특단의 방역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보상' 카드를 내밀며 '코로나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 및 사망자 숫자가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그간 자랑거리로 삼아온 'K방역'이 흔들리면서 대선 약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방역 책임론의 여파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대구·경북(TK) 방문 당시 확진자 밀집 접촉으로 의도치 않게 전날 휴식을 가졌던 이 후보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판정 후 재개한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먼저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을 위로하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따른 애로사항, 의견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보라매병원 의료진이 공공병원의 어려움을 토로하자 병상 확보와 공공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해봐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며 "시립 병원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병상 확보와 시설, 인력 등 세 가지가 모두 문제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병실에 입원을 못하고 재택으로 치료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는데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섰다. 이것도 문제다. 검사가 늘면 환자도 느끼는 병실은 없고 위증증 환자를 신경 써야 하니 결국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 강화하면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테니 억울하거나 소외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도 이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중소기업벤처부·질병관리청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책과 백신패스 도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매출 감소를 입증한 뒤에야 보상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현 손실보상 제도를 '사전 지원 및 사후 정산'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예컨대 한 식당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에 10만원의 매출을 냈다면, 정부 방역조치로 14일간 가게 문을 닫을 경우 14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날 이 후보가 '특단의 조치와 자영업자 선지원'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중단 방침 발표, 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 "다시금 어려움에 처하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강구해달라"며 "이미 베풀었듯이 물릴 대로 물렸고 그 기간도 장기화됐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벤처부는 현행 '영업 제한' 사업장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까지 확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행법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체계 안에서 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은 (정부와) 더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개편했다. 선대위 내 코로나19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곳에서 매일 코로나 19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와 정치권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선지원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 손실보상과 지원 입법 논의에 바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코로나 문제에서만 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시민·이해찬 이어 박영선도 구원등판 이재명 캠프 디지털 혁신 위원장 맡는다

미국 생활 정리하고 입국

선대위 "민주개혁 진영 총결집"

박영선(사진)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기 귀국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15일 박 전 장관은 선대위에서 정책과 공약 개발을 담당하는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제는 민주개혁 진영의 모든 사람이 결집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박 전 장관은 중기벤처부를 이끈 경험이 있으니 그를 토대로 디지털 대전환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100여일 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16일 뉴욕에서 귀국 비행기에 올라 17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구원등판은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곽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



찬 전 대표 등에 이어 여권 진영 총결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침묵을 깨고 라디오에 출연, "대선이 약 9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우리 진영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될 시간이 왔다"고 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 전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고문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해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IBM 왓슨 연구소를 비롯해 정보기술(IT) 관련 시설을 방문하고 오바마 정부 당시 에너지 장관 등을 만나는 등 미국의 디지털 혁신 상황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당초 일정상으로는 내년 1월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을 떠나기 직전 이 후보와의 인터뷰 5부작인 '선문명답'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사실상 이 후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박 전 장관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뿐 아니라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도 박 전 장관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박 전 장관과 수차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과 이 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대통령후보 선출 후보 캠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인 BBK 문제를 제기하는 저격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과 공약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장관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서울 중로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선지원·후정산'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

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신속히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